군산시, 2017년 내실화 다지는 드림스타트사업으로

어린이 행복도시 완성도 높인다

군산시가 2017년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한 가운데, 취약계층 아동과 부모를 위한 다양하고 역동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군산시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과제 중 하나인 '어린이행복 과 민선 6기 최우선 과제 '어린이 행복도시' 완성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 가운데, 부모로부터 소외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여준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0~12세 아동 중 학습부진, 교육소외, 영양결핍, 학대, 방임, 정서적 불안정 및 폭력 등 복합적인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필요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여 인생의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의 구조적인 악순환 차단을 돕는 사전 예방적 아동복지사업이다.

유형은 기본 서비스, 필수 서비스, 맞춤 서비스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서비스는 대상아동을 발굴하여 주기적 면담과 방문을 통한 사례관리로 아동과 부모의 욕구조사,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과정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필수 서비스는 건강검진 및 예방, 정신건강, 산전 · 산후관리, 부모교육 등 12개 영역에 해당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맞춤 서비스는 사례관리 아동과 가족 대상자의 사정결과에 따라 지원되는 서비스이다.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2011년 4월 4개동을 시작으로, 2014년에 6개동을 추가해 2015년에는 전 27개 읍면동지역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신체 · 건강, 인지 · 언어, 정서 · 행동, 부모 및 가족지원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통합 사례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2017년도 군산시 드림스타트 주요사업은 ▲영 · 유아(0~6세) 사업 확대 ▲드림스타트에서 미래의 꿈을 키우는 개인별 특기 · 적성 지원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는 '가족지원사업'을 중점 추진 한다.

차정희 어린이행복과장은 "2017년도에는 내실화를 다지는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어린이 행복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서비스를 준비할 때부터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간여행축제 아이디어 공모

군산시가 '2017 군산시간여행축제'의 질 높은 프로그램 확충과 공간 확대를 통해 경쟁력 있는 대표 축제로 거듭나고자 축제 전반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자격은 개인 · 단체 등 제한이 없으며 공모분야는 축제 프로그램, 편의시설 등 시설물, 홍보 아이디어, 포스터 · 리플렛 등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단, 타 공모전 수상 작품, 국내 · 외 발표된 아이디어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발표된 아이디어의 경우 응모할 수 없다.

아이디어 개수는 제한이 없으나 시상은 최고 훈격만 실시하게 되고, 접수된 아이디어는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고 수상결과는 개별통보 및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시상금은 총 500만원 규모로 최우수 1개, 우수 2개, 장려 2개로 총 5개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농업행정타운 신설 · 이전

익산시 농업발전의 허브가 될 농업행정타운이 마침내 베일을 벗는다. 시에 따르면 1월 상반기 정기인사와 함께 단행되는 조직개편으로 농업관련 부서 일부가 현 원광보건대 합열캠퍼스(구 익산군청사)로 이전한다.

익산시 북부청사로 이전하는 부서는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산림과 등 조직개편과 함께 신설되는 미래농정국 산하 5개과로 농업 현장 중심에서 농업정책을 총괄하며 농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 등 2개과로 축소된 농업기술센터는 현 위치에 그대로 잔류하면서 농업인 교육, 귀농귀촌 및 도시농업 활성화 등 농업인과 농촌 경쟁력을 제고하는 지도 분야에 집중하게 된다.

정헌율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인 농업행정타운은 국가식품클러스터로 기회를 맞은 익산시가 농정역량 강화 및 집적화를 통해 농업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그 첫 단계로 조직개편과 함께 농업정책의 씽크탱크가 될 미래농정국을 신설 이전하고 단계적으로 농업인회관, 종합복지관, 현장민원센터, 커뮤니티 조직 등 거버넌스형 행정타운으로 완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친환경쌀, 서울시 학교급식 공급확대

군산 친환경쌀을 중간 유통단계 없이 직접 공급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서울시 학교급식용 군산쌀 공급량'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2010년부터 수도권 학교급식에 친환경쌀을 공급하기 시작해 해마다 공급량을 확대해 온 결과, 지난해까지 7년간 총 3523톤(95억원)의 친환경쌀을 공급했다.

이와 같이 수도권 학교급식 친환경쌀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 군산시는 홍보반을 편성하고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대도시의 구청 및 교육청, 학교 등을 방문해 홍보용 쌀을 증정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왔다.

그 결과, 2017년 친환경쌀 학교급식 공급업체 선정을 위해 서울 노원구청 및 금천구청에서 주관한 '친환경쌀 학교급식 품평회'에서 옥구농협 '못잊어 신동진'이 공급업체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 3월부터 노원구에는 2년간 80톤(2억원)을, 금천구에는 4년간 200톤(5억원)을 공급하게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해경 밀물 고립된 관광객 구조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개통된 후 육로를 통해 섬을 방문한 관광객이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6일 오후 2시31분께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앞 '쥐똥섬' 인근에서 김모(45 · 여)씨 등 4명이 밀물에 고립돼 출동한 해경과 구조지원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2일에도 정모(58 · 남)씨 등 2명이 같은 지리에서 밀물에 고립돼 해경에 구조됐다.

해경은 관광객들이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의 특성을 모르고 무인도와 갯벌에 들어갔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관광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김준채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장 익산지사 방문 현안사항 청취

한국농어촌공사 김준채 전북지역본부장은 17일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지사장 김선호)를 방문해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지연되고 있는 송학지구 전원마을 사업 예정지를 방문했다.

김준채 본부장은 직원들과 대화를 통하여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공사 경영개선을 위하여 본부에서 역점추진하고 있는 '경영전 분야 전년대비 10% 증대 노력'에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송학지구 전원마을 사업예정지를 방문해 고객만족과 청렴한 공사인을 강조하면서 대 고객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 것을 당부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전북서부보훈지청 부안혜성병원 간담회

전북서부보훈지청은 최근 부안지역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으로 재 지정된 부안혜성병원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설 명절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위문과 영구용 태극기 병원 내 비치, 호국보훈의 달 업무 협조 등에 관해 이야기 했다.

부안혜성병원은 보훈위탁병원으로 재 선정되어 부안지역 보훈대상자들의 진료를 책임지고 있다.

이우실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은 "부안혜성병원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진료를 제공하고 최상의 진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익산=장양원기자

전라북도농업기술원

파프리카 신품종 출원 · 통상실시 체결

수경재배 적합 '헤스티아'

전라북도농업기술원(원장 김학주)은 금값보다 비싼 종자 개발을 위해 추진중에 있는 골든시드프로젝트(GSP)를 통해 국산 파프리카 신품종인 여름철 수경재배에 적합한 '헤스티아' 품종을 출원하고, 농가보급 확대 일환으로 국내 종자업체와 통상실시를 체결했다.

수출유망작목인 파프리카는 재배면적이 2010년 424ha에서 2015년 707ha로 1.7배 정도 증가하였으나, 국산 품종의 보급이 저조하여 대부분을 수입산 종자에 의존해 재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통상실시로 전북도내 71ha 파프리카 농가뿐만 아니라 국내 재배지역에 국산 종자 보급이 가능하게 되어 농가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농업기술원 박종숙 연구사는 "파프리카 신품종인 '헤스티아' 품종은 과 크기가 180~200g 정도의 중대과, 적색품종으로 과면의 광택이 우수하며, 과형이 균일하고,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수출용에도 적합한 경도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후에서 선발된 여름재배용 품종으로 착과가 양호하여 농가에서도 반응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국내 유일의 파프리카 단일작목 연구소인 과채류연구소 파프리카시험장에서는 2017년 6월 골든시드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파프리카 연구기관 및 종자업체의 육성 품종을 한 자리에서 모아 전시 및 현장 평가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전시 및 평가회에는 도내 파프리카 재배농가와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국내 재배환경에 적합하고 수출 경쟁력이 있는 품종선발과 우수 품종은 현장에서 농가와 연결하여 종자를 제공하고 재배시험을 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수행하고,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국산 종자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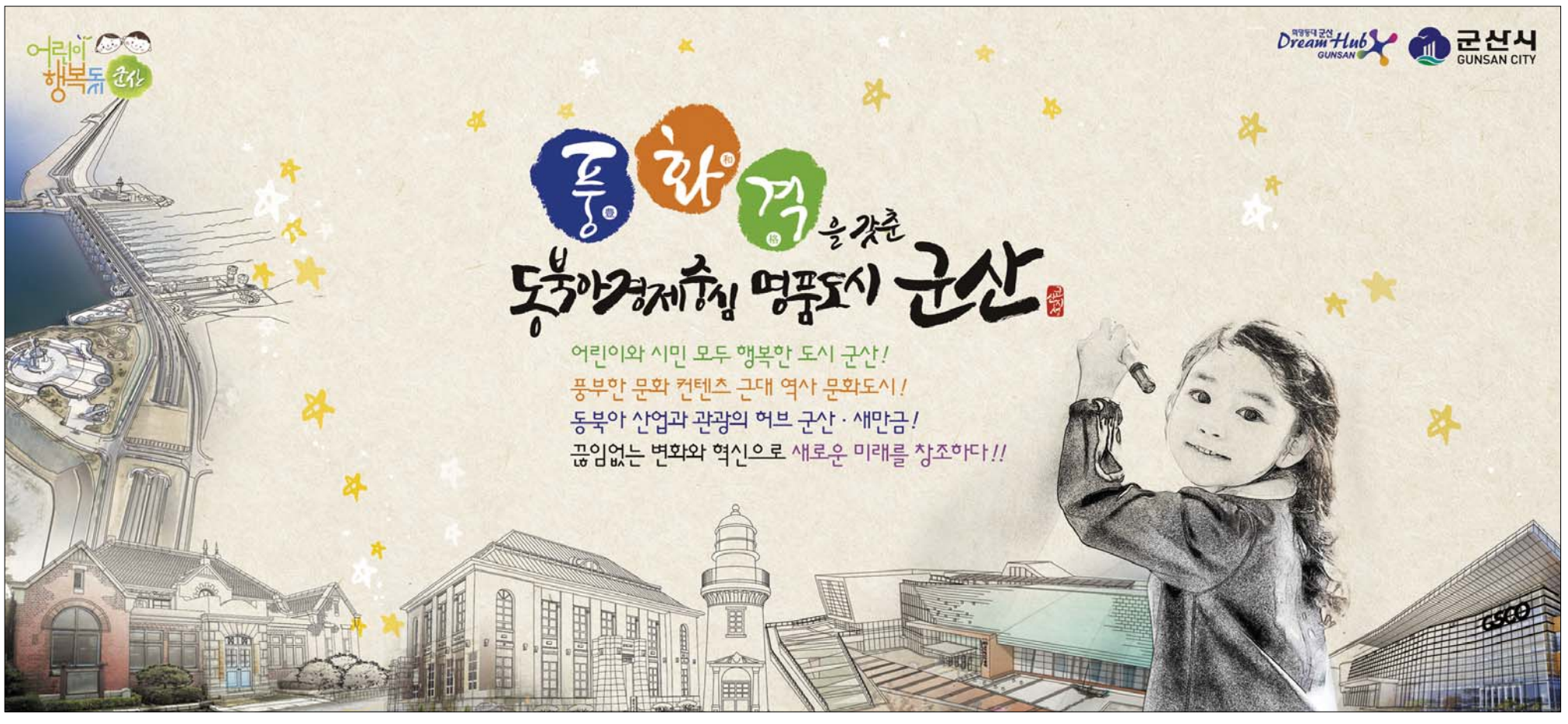
군산시, 명절 물가 안정 관리 '총력'

군산시가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AI로 인한 농축산물의 수급 불안이 겹치면서 서민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물가안정 대책 수립에 나섰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설 명절 물가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해 물가안정 관리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우선,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31개 품목에 대해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산품, 농수축산물, 개인서비스 요금 등 분야별 합동지도 ·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내 고장 상품 및 전통시장 이용에 앞장서고자 군산시 전직원이 1억24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키로 했으며, 관내 기업 · 기관 · 단체에도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오는 23일에는 소비자단체와 유관기관 등 관련부서 40여명이 참석해 롯데마트 사거리 등지에서 전통시장 이용 홍보활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기자